

문학/영화와 인공지능

문학과 영화 2: 미래 사나이

2-1. 미래 사나이: 작가와 작품

모래 사나이

나타나엘의 공포(코펠리우스, 코폴라)

선택의 문제: 클라라와 올림피아

주인공과 기계인형으로서의 올림피아

● 미래 사나이

인간은 인간을 위해 기계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기계에 대해 갖는 감정은
복잡함(공포, 불안)



작가와 작품

독일 낭만주의 작가 E. T. A. Hoffmann(1776-1822)

“ 인간과 자동인형 간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 ”





모래 사나이(1816)

독일 낭만주의 소설: 인간의 무의식, 내면

당대의 자연과학과 철학, 기술의 발전 현실을 수용(기계인형)

눈과 시각에 대한 이야기

“모래 사나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나타나엘, 아직 그것도 모르니?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자러 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 와서
눈에 모래를 한줌 뿌린단다.

눈알이 피투성이가 되어 튀어나오면
모래 사나이는 그 눈알을 자루에 넣어 자기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달나라로 돌아가지.”

(호프만, 2001, p. 16)

자동인형 실험

나무로서의 실험대상



실험을 훔쳐보는 나타나엘

살아있는 신체 자체도 실험대상

A



인간과 기계 사이의 선택

호프만의 '이름상징 Namensymbolik'

나타나엘 Nathanael



“신의 선물”; 낭만적 성향을 지닌
시적인 poetisch 성향

클라라 Clara



“명료함”; 차분하고 이성적 혹은
차갑고 감정이 없으며
산문적 prosaisch 성향

● 감정과 공감의 문제

약혼자 클라라

“너는 생명도 없는
저주받은 자동인형이야.”

(호프만, 2001, p. 44)

자동인형 올림피아

“나타나엘은 처음으로 올림피아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두 눈만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고
생기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보니 올림피아의 눈에 젖은 달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제야 비로소 시력이
생긴 것 같았다.”

(호프만, 2001, p. 50)



“그는 올림피아의 손과 입술에 키스를 했다.
뜨거운 그의 입술에 얼음처럼 차가운 입술이 닿았다!
올림피아의 차가운 손을 만졌을 때처럼 깊은 공포가 그를 휩쌌다.
죽은 신부에 대한 전설이 문득 떠올랐다.
그러나 올림피아는 그를 꼭 껴안았다.
키스를 하는 동안 그녀의 입술이
생명으로 따듯해지는 것 같았다.”

(호프만, 2001, p. 56)

출처

#1 에른스트 호프만, <https://ko.wikipedia.org/>

#2 호프만, E. T. A. (2001). 모래 사나이 (김현성,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서출판 1816).

#3 호프만의 모래 사나이, <https://de.m.wikipedia.org/>

#4, 5, 6 호프만, E. T. A. (2001). 모래 사나이 (김현성,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서출판 1816).

문학/영화와 인공지능

문학과 영화 2: 미래 사나이

2-2. 파트너 선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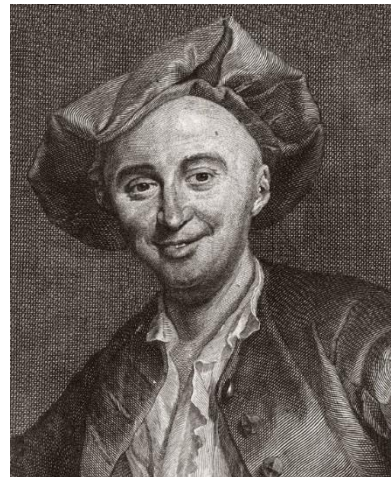
● 프랑스 철학의 인간, 기계, 동물에 대한 논쟁



Jacques de Vauca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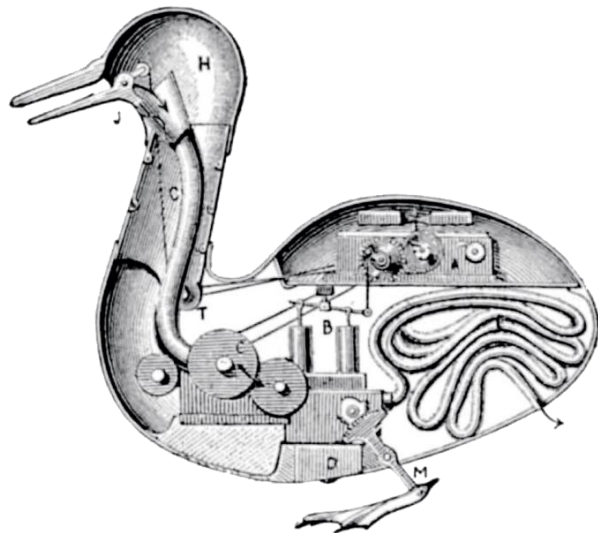


René Descartes



Julien Offray de La Mettrie

● 근대와 기계, 동물, 인간



전기 비너스 Venus electrificta

사랑과 담론의 변화: 낭만적, 영속적 사랑

“인간의 형상을 한 것에 대한 심한 불신”

(호프만, 2001, p. 66)



A



인간과 기계 사이의 선택

● 나타나엘의 선택

약혼녀 클라라 vs 자동인형 올림피아

“ 인간이 아닌 자동인형을 선택 ”



그는 왜 올림피아를 선택하였는가



“너희들처럼 냉정하고 산문적인 인간들에게는
올림피아가 두렵게 보일 거야.
시적인 감정은 오직 동일한 감성 체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펼쳐지는 거니까!
그녀의 사랑의 눈길은 내게만 다가와 감각과 생각을 비추고,
올림피아의 사랑 속에서만 나는 자신을 되찾을 수 있어.”

(호프만, 2001, p. 56)

출처

#1 Jacques de Vaucanson, <https://en.wikipedia.org/>

#2 Rene Decartes, <https://en.wikipedia.org/>

#3 Julien Offray de La Mettrie, <https://en.wikipedia.org/>

#4 Mecha Duck, <https://commons.wikimedia.org/>

#5, 7 호프만, E. T. A. (2001). 모래 사나이 (김현성,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서출판 1816).

#6 The Electric Kiss demo, <https://en.wikipedia.org/>

문학/영화와 인공지능

문학과 영화 2: 미래 사나이

2-3. 시각과 언캐니 Das Unheimliche의 문제



언캐니 Das Unheimliche

● 나타나엘의 불안과 공포

어린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코펠리우스가
청우계 장사 코폴라로 다시 태어난 데자뷰

● 나타나엘의 불안과 공포

어린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코펠리우스가
청우계 장사 코폴라로 다시 태어난 데자뷰

눈을 빼어가는 전설의 모래 사나이

코펠리우스의 자동인형실험



어린 시절의 악몽

자동인형 실험

나무로서의 실험대상



실험을 훔쳐보는 나타나엘

살아있는 신체 자체도 실험대상



● 공포를 무시하는 클라라와 오빠 로타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외부의 진짜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일”

“**어리석고-무의미하고-미친 동화**”

(호프만, 2001, p. 44)



Das Unheimliche

Das Unheimliche, 기이한 느낌

Das Un-heimliche, 낯익은 두려움

언캐니 밸리, 모리 마사히로



어린 시절의 악몽

유모의 동화

아버지와 코펠리우스의 실험

눈, 손발의 메커니즘

망원경과 자동인형

A 시각의 문제

● 내면과 외면

나타나엘의 내면적 심리상황

외적감각보다 더 강렬
'시각 Optik'과 '봄 sehen'의
일관된 문제의식
망원경을 통해 보게 됨

올림피아에 대한 애정

나르시시즘, 자기투사, 자기에

결론

올림피아의 선택: 내면과 외면의 시각 문제

시각의 파괴

“ 독일 낭만주의 소설이지만
당대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내면을 분석
공포, 언캐니 등이 이미 다루어지고 있음 ”

출처

#1 sandman, <https://pixabay.com/>

#2 호프만의 모래 사나이, <https://de.m.wikipedia.org/>

#3 호프만, E. T. A. (2001). 모래 사나이 (김현성,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서출판 1816).